

#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해야 ...

— 防産學會 '96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개최



**한국** 방위산업학회 '96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가 2월 23일 캐피탈호텔 가야룸에서 産·學·研·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白永勳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에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防産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학회 회원들의 정책대안 및 연구개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창립 5주년을 맞이해 학회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회 연구활동이 실제 방산업체에 적용되어 도

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金殷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방향과 방위산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모방 및 개량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 및 원천과학기술력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해 대폭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防振會 제11대 상근부회장에 安秉吉 前 제2차관보 선임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제11대 상근부회장에 安秉吉 前 국방부 제2차관보가 선임되었다.

지난 2월 6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선임 安秉吉 상근부회장은 제9사단 포병연대장, 국방부 투자사업조정관 등 전후방 지휘관의 요직을 거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후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과 국방부 제2차관보를 역임하였다.

프로필

**安秉吉** 상근부회장

가족 : 권석정 여사와 1남 2녀

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 (19기)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약력 : 제 1 군단 참모장

국방부 투자사업 조정관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

국방부 제2차관보

# 차세대 한국위성 등 대형위성 제작 추진

— 현대전자, 로랄사에 4억불 규모의 소형 인공위성 공급



## 현대

전자(대표: 鄭夢憲)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성 제작에 착수한다. 현대전자는 전 세계를 무선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대형 위성사업인 글로벌스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 시스템스로랄사에 오는 2005년까지 4억불 규모의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 26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또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스파지오사로부터 인공위성 제작 및 시스템 운영 기술을 이전 받기도 했다.

鄭夢憲 현대전자 회장, 金柱瑢 현대전자 사장, SS로랄사의 존 클라이버그 수석 부사장, 알레니아 스파지오사의 에르네스토 발레라니 회장 등 3사 대표들은 1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협정서에 조인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타에 들어가는 1세대 인공위성 56기 가운데 현대전자는 가장 마지막에 쏘아 올리는 위성 1기를 내년중 알레니아 스파지오사에서 조립, 공급한다.

이후 수명이 다한 1세대 위성을 대신할 2세대 위성부터는 이천 본사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작, 오

는 '97년 1기, '98~'99년 5기, 2000~2005년 20기 등 모두 26기의 인공위성을 공급한다.

또한 현대전자는 2000년경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아·태지역 위성 및 차세대 한국위성 등 총 14기의 정지궤도용 대형 상용인공위성 제작사업도 공동 추진키로 합의, 이를 위해 위성 양산 시설 및 연구개발에 97년 말까지 1억5천만불을 투자키로 하고 위성사업단 소속 전담기술진 40명을

미국, 이탈리아 등에 파견, System Engineering 기술 및 AIT 기술 전수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는 글로벌스타 인공위성의 국내 제작·공급을 통해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제작시 필요한 시스템 기술, 조립생산 공정 기술 및 극한 우주환경에서의 품질인증을 위한 위성체 환경 시험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궤도 소형 상용위성에서부터 국제경쟁력이 있는 중대형 상용위성의 설계 및 생산기술과 우주환경 시험기술의 국내 기반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현대전자는 글로벌스타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해당국가에서의 위성서비스사업, 위성체 제작사업(부품사업 포함), 위성 단말기 및 관문국 사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위성체 전문 제조업체와 동등하게 국내 기술진에 의해 위성체를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국가에서 중점 추진중인 우주사업분야의 선진 10대 국가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